

## 해주반 판각의 조형분석에 관한 연구<sup>1</sup>

이유진<sup>† 2</sup> · 임승택<sup>3</sup>

### Study on formal analysis of carving boards in 'Haejuban'<sup>1</sup>

Yoo-jin Lee<sup>† 2</sup> · Seung-Taeg Lim<sup>3</sup>

#### ABSTRACT

This paper i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Figurative data applicable to modern furniture designs through doing research on Haejuban's engraving that includes excellent Figurative beauty among Korean traditional lighted-floor type furnitur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Haejuban's(Traditional Korean dining table) engraving pattern type was mainly divided into independent patterns and combined patterns. The patterns expressed the most among them are peony patterns. The patterns expressed by the engraving mostly showed the Figurative characteristics of symmetry. The patterns shown in Haejuban's engraving wish or stand for richness, long life, lucky, fidelity, divinity, happiness, success and so on. The species of trees used for Haejuban were a total of 8 kinds such as ginkgo trees, zelkova trees, walnut trees, wild-walnut trees, chinaberry trees and other scrub trees. Ginkgo trees were used the most among them.

**Keywords** : engraving pattern type, independent patterns, combined patterns, symmetry, Haejuban.

## 1. 서론

### 1-1 연구목적 및 배경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지형이 남북으로 길어 서로 기온차가 심하며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조건을 갖고 있다. 특히 여름에 고온다습하고, 겨울의 춥고 건조한 기후는 청동기 시대부터 온돌이라는 독특한 형식의 난방을 갖게 했다.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은 우리의 실내 생활 형태를 평좌식으로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고, 식사공간과 부엌과의 거리가 떨어진 주거 형태는 음식을 담

1. 논문접수: 2009. 05. 01.; 심사: 2009. 05. 30.; 게재확정: 2009. 09. 15.

2.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Dept. of Fine Arts, College Of Arts, Chonbuk National Univercity, Chonjoo, Korea.

3.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Dept. of Fine Arts, College of Arts, Chonbuk National Univercity, Chonjoo, Korea.

† Corresponding author: Yoo-Jin Lee(E-mail: jin2415@hanmail.net).

아 나르는 기능의 소반이라는 용구를 낳게 하였다(소반은 평좌식 생활을 하는 주거 공간에 알맞은 기물로, 식기를 놓고 식사를 하거나 식기를 담아 옮기는 기능을 담당함. 또한 소반은 식기를 올려놓으면 평좌식 식탁이 되지만 책을 놓으면 책상의 역할도 하는 복합기능을 가진 도구).

소반은 삼국시대의 생활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무용총과 각저총의 벽화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현재 유물로 남아 있는 것은 19세기 이후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평좌식 생활에서 사용된 소반은 우리의 주거환경이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좌식에서 의자와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 생활로 변화됨에 따라 사용빈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입식의 주택구조가 우리나라 전통가옥구조의 현대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형성되었다기보다 외세에 의한 급격한 근대화 과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택공간의 형태가 분별없이 변모해왔다. 이에 따라 실내에 비치되는 가구 역시 무분별한 외래 양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거공간에 현대식의 여러 기능을 지닌 가구가 우리의 전통문화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오랜 관습 때문에 입식생활에서도 소반과 같은 좌식가구들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또 그것은 우리의 주거환경이 입식으로 바뀌었지만 실생활에서는 온돌구조와 유사한 기능의 난방방식이 아직도 우리의 주거문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통양식의 소반은 아니지만 소반이나 찻상, 식탁 등 현대식 가구구조에 전통적인 것을 표현한 절충 양식의 가구류가 생활 저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에 표현된 디자인은 대체로 조악한 수준이어서 디자인의 개선과 전통 조형 요소의 현대적 재해석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거환경과 가구의 형태는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의 생활과 감정 속에는 아직도 평좌식 형태의 소반이 남아있다는 것과 전통 조형요소에 대한 자료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현대의 입식 주거생활에서도 우리의 전통 문화와 관습을 바탕으로 한 소반과 같은 좌식가구에 관한 조형 연구는 더욱 절실하다. 특히 이러한 전통가구에 표현되어 온 조형미의 원형을 발굴하여 현대 가구디자인에 접목하거나 조형 요소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분석, 정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조선시대에 소반은 가내 수공업으로 제작되었고, 각 지방마다 전통적인 형태가 형성되어 생산지에 따른 소반의 여러 유형이 생기게 되었다. 즉 해주반, 나주반, 통영반, 기호반, 강원반, 안주반 등이 그것이다(나 1989). 특히 해주반은 황해도 해주지역에서 주로 생산된 것으로 장식성이 강하여 화려하고 귀족적인 멋을 풍기고 있다. 장식성이 집중된 해주반의 다리는 좌우 양쪽이 판으로 구성된, 판각의 개성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여러 수종으로 제작된 판각에는 다채롭고 화려한 문양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전통 좌식 가구 중 뛰어난 조형미가 내재된 해주반의 판각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가구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는 조형 자료를 연구하여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1-2 연구방법 및 범위

해주반은, 식사를 하는 장소와 부엌이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구조에서 사용되어오던 소반의 한 형태로, 황해도 해주지역에서 주로 생산된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과 다른 해주반의 큰 특징은 다리가 천판 양쪽에 판각으로 짜여진 것인데, 판각에는 조각이나 투각으

로 처리된 다양한 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되는 해주반의 판각 연구는 구체적으로 해주반 판각에 나타난 문양의 형식을 분석하여 유형으로 구분하고, 주요 문양으로 판단되는 것들은 펼친그림(도식)으로 정리하여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다. 또 해주반의 판각에 사용된 수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등 몇 가지 과정을 거쳐 해주반의 판각에 관한 조형 분석을 마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해주반의 연구는 주로 일부 박물관과 관련 문헌에 게재되어있는 제한된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 해주반 단독 주제보다는 소반과 같은 포괄적인 주제에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으로 치중하여 진행되어왔다. 구체적으로 소반에 관한 선행연구는 소반의 활용방안(한 2008), 전통소반과 현대소반의 연계논문(박 2007), 전통 소반을 응용한 개발논문(이 2008) 그리고 통영반(이 1980)과 나주반(남궁 2000)에 관한 논문 등이 있다. 그러므로 해주반과 해주반의 판각에 표현된 문양 연구는 본격적으로 시도 되지 않아 이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우선 대다수의 실물 사례들이 얼마 전 까지 북한에 주로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적 교류 및 물류이동의 제한과 한정된 자료에 의한 연구 대상으로의 어려움이 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실물사례가 부족한 해주반에 관한 문양 연구는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판각 문양의 유형 분류와 주요 문양의 도식 그리고 해주반 재료에 관한 수종 분석은 다른 무엇보다도 해주반 연구에 중요한 기초적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의 사례로 이용된 해주반은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국한하였다. 제작 시기는 문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19세기 이후의 것으로 하고,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와 문헌조사 방법을 채택하였고 일부분은 실물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 입장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해주반의 판각에 표현된 문양의 유형 분석은 미학적 안목과 조형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사례는 전통가구 업체인 인사동소재의 '고도사'에서 수집된 해주반 61점과 기타의 참고문헌 등에서 발췌된 11점을 포함하여 모두 72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 같은 자료 중에서 중복되는 7점을 제외하고 총 65점을 연구사례로 삼았으며, 사례의 출전은 본문의 말미에 정리 제시하였다.

## 2. 해주반 판각의 유형분석

### 2-1 판각 문양의 유형

수집된 사례를 통한 해주반 판각 문양의 유형은 크게 기하학적 무늬, 동물문, 식물문으로 분류되었다. 유형분류에 사용된 방법은 1995년도 '한국문화재단'에서 간행된 『한국의 무늬』에서 분류된 것을 참고 하였다. 그 밖의 문양관련문헌에서는 문양의 분류방법이 여러 가지로 서로 상이하여 일의적 분류 체계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전문성과 신뢰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였다. 『한국의 무늬』에서는 무늬의 종류를 기하학적 무늬, 자연 상징 무늬, 종교와 무늬, 동물 무늬, 식물 무늬, 귀형 무늬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본 논문의 해주반 판각에 나타난 무늬를 유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방법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석하였다.

#### 2-1-1 기하학적무늬

아래의 <Table 1>은 기하학적 문양의 판각 사례 11점을 5가지의 세부문양인 쌍희자문(雙喜字紋) 3점, 만자문(卍字紋) 3점, 수복문(壽福紋) 1점, 수자문(壽字紋) 1점, 창살문 1점으로 구분하여 분류해 놓은 표이다. 수자문은 3점 모두가 원형의 틀 안에 투각 되어있으며, 쌍희자문 3점과 만자문 3점 창살문, 수복문등은 서로 크기만 다를 뿐 문양은 단독으로 사각의 틀 안에 투각되어 있다.

Table 1. Examples of carving boards of geometrical pattern

총 수량	분류 (수량)	사례	사례의 규격 (단위 : mm)	재료
총 10점	쌍희자문 (3)	 <Fig. 1.> < Fig. 2.> <Fig. 3.>	<Fig. 1.> 420×303×280 <Fig. 2.> 476×368×280 <Fig. 3.> 480×360×298	느티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만자문 (3)	 <Fig. 4.> <Fig. 5.> <Fig. 6.>	<Fig. 4.> 445×337×275 <Fig. 5.> 324×288×250 <Fig. 6.> 458×360×290	가래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수자문 (3)	 <Fig. 8.><Fig. 9.><Fig. 10.>	<Fig. 8.> 433×338×275 <Fig. 9.> 338×319×220 <Fig. 10.> 367×281×220	은행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창살문 (1)	 <Fig. 11.>	<Fig. 11.> 640×382×320	느티나무

2-1-2 식물문

아래의 <Table 2>는 식물문으로 분류된 판각 사례 21점의 세부 문양을, 초화문, 연꽃문, 국화문, 모란문, 초문의 5가지로 구분하여 놓은 것이다. 여기에서와 같이 식물문 중에서는 모란문이 10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까닭은 모란은 우선 부귀(富貴)를 상징하는 꽃으로 부귀에 대한 기원의 의미가 강렬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문양 형식이 가장 많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식물문은 초화문 5점, 연꽃문 3점, 국화문 2점, 초문 1점으로 조사되어 모란문 보다 적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 Examples of carving boards of botanical pattern

총 수량	분류 (수량)	사례	사례의 규격 (단위 : mm)	재료
총 21점	초화문 (5)	 <Fig. 12.> <Fig. 13.> <Fig. 14.>  <Fig. 15.> <Fig. 16.>	<Fig. 12.> 420×325×290 <Fig. 13.> 430×332×275 <Fig. 14.> 445×342×290 <Fig. 15.> 432×337×300 <Fig. 16.> 437×354×300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연꽃문 (3)	 <Fig. 17.><Fig. 18.><Fig. 19.>	<Fig. 17.> 380×315×215 <Fig. 18.> 430×345×290 <Fig. 19.> 403×302×250	은행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국화문 (2)	 <Fig. 20.> <Fig. 21.>	<Fig. 20.> 435×332×265 <Fig. 21.> 435×363×268	느티나무 잣목
	모란문 (10)	 <Fig. 22.><Fig. 23.><Fig. 24.><Fig. 25.>  <Fig. 26.> <Fig. 27.> <Fig. 28.>  <Fig. 29.><Fig. 30.> <Fig. 31.>	<Fig. 22.> 463×347×277 <Fig. 23.> 467×352×280 <Fig. 24.> 452×319×280 <Fig. 25.> 450×353×265 <Fig. 26.> 466×363×286 <Fig. 27.> 349×450×270 <Fig. 28.> 475×352×297 <Fig. 29.> 435×340×295 <Fig. 30.> 420×331×280 <Fig. 31.> 462×365×292	호두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미확인 은행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초문 (1)	 <Fig. 32.>	<Fig. 32.> 425×324×282	은행나무

2-1-3 동물문

아래의 <Table 3.>은 동물문의 판각 사례인데 단독으로 나타난 동물문은 모두 새를 소재로 투각 처리되었다. 새문, 쌍학문 등 2가지로 3점을 구분해 놓은 것이다. 동물문의 사례는 다양한 양식의 식물문에 비해서 수적으로 종류가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

Table 3. Examples of carving boards of animal pattern

총 수량	분류 (수량)	사례	사례의 규격 (단위 : mm)	재료
총 3점	새문 (2)	 <Fig. 33.>   <Fig. 34.>	<Fig. 33.> 390×293×255 <Fig. 34.> 460×360×285	은행나무 은행나무
	쌍학문 (1)	 <Fig. 35.>	<Fig. 35.> 457×345×280	은행나무






2-1-4 혼합문

아래의 <Table 4.>는 혼합문양의 판각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동물문과 식물문의 소재 2-3가지 또는 동물문과 기하문(Fig. 7, Fig. 36.)이 같이 사용되어서 혼합문으로 분류 하였다. 이것은 모두 31점인데 잉어연꽃나비문, 잉어연꽃문, 잉어초문, 나비꽃문, 나비국화문, 모란나비문, 모란새문, 매화새문, 수복문, 그리고 봉황쌍희자문으로 구분해 보았다.

동물문으로 사용된 소재는 잉어문과 나비문, 새문이었으며, 식물문은 연꽃과 국화, 초문, 꽃문, 국화, 모란 등 이었다. 이 중 나비와 꽃이 혼합된 나비꽃문이 10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각각 크기는 다르지만 혼합된 동일 형식의 문양을 구성하고 있다. 또 혼합문은 동물문이나 식물문 그리고 기하문보다도 훨씬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해주반의 판각 문양은 혼합문이 민간에서 가장 널리 애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Examples of carving boards of mixed pattern

총 수량	분류 (수량)	사례	사례의 규격 (단위 : mm)	재료
	잉어연꽃 나비문 (3)	 <Fig. 37.>   <Fig. 38.>   <Fig. 39.>	<Fig. 37.> 440×340×280 <Fig. 38.> 447×357×312 <Fig. 39.> 422×327×288	은행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p>잉어 연꽃문 (3)</p>	 <p>&lt;Fig. 40.&gt;&lt;Fig. 41.&gt; &lt;Fig. 42.&gt;</p>	<p>&lt;Fig. 40.&gt; 420×324×290 &lt;Fig. 41.&gt; 402×302×270 &lt;Fig. 42.&gt; 446×334×290</p>	<p>단풍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p>
	<p>잉어초문 (1)</p>	 <p>&lt;Fig. 43.&gt;</p>	<p>&lt;Fig. 43.&gt; 330×264×230</p>	<p>은행나무</p>
<p>총 31점</p>	<p>나비꽃문 (10)</p>	 <p>&lt;Fig. 44.&gt; &lt;Fig. 45.&gt; &lt;Fig. 46.&gt; &lt;Fig. 47.&gt;&lt;Fig. 48.&gt;&lt;Fig. 49.&gt;&lt;Fig. 50.&gt; &lt;Fig. 51.&gt; &lt;Fig. 52.&gt; &lt;Fig. 53.&gt;</p>	<p>&lt;Fig. 44.&gt; 465×353×313 &lt;Fig. 45.&gt; 470×372×314 &lt;Fig. 46.&gt; 400×300×280 &lt;Fig. 47.&gt; 375×259×230 &lt;Fig. 48.&gt; 463×357×282 &lt;Fig. 49.&gt; 413×309×278 &lt;Fig. 50.&gt; 415×320×270 &lt;Fig. 51.&gt; 415×326×280 &lt;Fig. 52.&gt; 445×350×292 &lt;Fig. 53.&gt; 485×382×330</p>	<p>단풍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갑목 은행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p>
	<p>나비 국화문 (4)</p>	 <p>&lt;Fig. 54.&gt;&lt;Fig. 55.&gt;&lt;Fig. 56.&gt;&lt;Fig. 57.&gt;</p>	<p>&lt;Fig. 54.&gt; 465×362×290 &lt;Fig. 55.&gt; 446×336×280 &lt;Fig. 56.&gt; 445×335×280 &lt;Fig. 57.&gt; 460×345×280</p>	<p>은행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p>
	<p>모란 나비문 (6)</p>	 <p>&lt;Fig. 58.&gt; &lt;Fig. 59.&gt; &lt;Fig. 60.&gt; &lt;Fig. 61.&gt; &lt;Fig. 62.&gt; &lt;Fig. 63.&gt;</p>	<p>&lt;Fig. 58.&gt; 463×355×295 &lt;Fig. 59.&gt; 450×353×282 &lt;Fig. 60.&gt; 450×345×286 &lt;Fig. 61.&gt; 435×330×285 &lt;Fig. 62.&gt; 425×325×280 &lt;Fig. 63.&gt; 465×354×297</p>	<p>은행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참죽나무 단풍나무</p>

모란새문 (1)		<Fig. 64.> 460×356×276	은행나무
매화새문 (1)		<Fig. 65.> 461×350×285	은행나무
수복문 (1)		<Fig. 7.> 442×342×290	은행나무
봉황쌍희 자문 (1)		<Fig. 36.> 425×362×285	은행나무

<Table 1, 2, 3, 4>의 분석결과 문양의 판각 사례 중 가장 많이 쓰인 문양소재는 식물문 중 모란문 이었다. 특히 식물문은 물론 혼합문에서도 부귀를 뜻하는 모란문은 가장 널리 사용된 소재로 조사되었다. 판각에 표현된 문양들은 대부분 좌우대칭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Table3> 새문의 <Fig. 33>만은 독립된 문양 표현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의 새문은 판각의 중앙 상단에 투각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판각 문양의 크기보다 작은 규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해주반은 소반의 일반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제사의식 때 사용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보통의 새문양이 상징하는 의미 중에는 조상의 영혼과 현세인 사이의 매신저 역할을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규격이 비교적 작을 뿐 아니라 문양의 구성이 일반적인 해주반과는 다르게 매우 검소하고 단아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양의 외형이 판각의 형태에 맞추어 사각형의 틀 안에 들어가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41개로 가장 많지만 원형의 틀 안에 구성된 것이 11점, 8각의 틀 안에 구성된 것이 6점이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Table5>의 판각문양의 테두리유형(외형)이다. 특히<Table4>의 혼합문으로 분류된 모란나비문은 6점 모두가 8각의 테두리 안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모란 줄기의 표현이 매우 역동적이며 볼륨 있는 형식으로 투각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Table1>의 기학적 무늬의 수자문 3점은 모두 원형 틀 안에 있는 글자의 모양이 자유스런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몇 가지 테두리유형의 조형방식은 숨씨 있고 경험 많은 목공으로부터 보편적인 내림 양식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경험을 쌓아가며 시도된 굳어진 형식에 대한 도전과 장인의 축적된 자연스런 안목의 결과가 작용하여 조금씩 변화된 여러 형식이 지금



의 모양처럼 전해진 것으로 조심스럽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문양의 표현에 잘 어울리고 보다 효율적인 판각의 형태를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도형이 최종적으로 굳어진 형태로 정리되어 일정기간 사용됐을 것이다. 여기에서 효과적인 표현이 가장 유리하고 가장 많이 조형 처리된 판각의 테두리 문양은 사각형의 틀이며, 그 다음은 원형, 팔각형 등의 순으로 <Table5>와 같이 그 사례가 조사되었다.

Table 5. The type of outline of carving boards

유형	사례	수량
사각형	<Fig. 1.>, <Fig. 2.>, <Fig. 3.>, <Fig. 5.>, <Fig. 6.> <Fig. 7.>, <Fig. 11.>, <Fig. 13.>, <Fig. 16.>, <Fig. 20.>, <Fig. 21.>, <Fig. 22.>, <Fig. 23.>, <Fig. 24.>, <Fig. 25.>, <Fig. 26.>, <Fig. 27.>, <Fig. 32.>, <Fig. 34.>, <Fig. 35.>, <Fig. 36.>, <Fig. 37.>, <Fig. 38.>, <Fig. 39.>, <Fig. 40.>, <Fig. 41.>, <Fig. 42.>, <Fig. 43.>, <Fig. 44.>, <Fig. 45.>, <Fig. 46.>, <Fig. 47.>, <Fig. 48.>, <Fig. 49.>, <Fig. 50.>, <Fig. 51.>, <Fig. 52.>, <Fig. 53.>, <Fig. 55.>, <Fig. 56.>, <Fig. 57.>, <Fig. 64.>, <Fig. 65.>	41
원형	<Fig. 8.>, <Fig. 9.>, <Fig. 10.>, <Fig. 12.>, <Fig. 15.>, <Fig. 17.>, <Fig. 18.>, <Fig. 19.>, <Fig. 28.>, <Fig. 29.>, <Fig. 30.>, <Fig. 31.>	11
팔각형	<Fig. 4.>, <Fig. 58.>, <Fig. 59.>, <Fig. 60.>, <Fig. 61.>, <Fig. 62.>, <Fig. 63.>	6
사각 귀집이형	<Fig. 26.>	1
네 귀 안쪽을 능형으로 굴린 사각형	<Fig. 14.>, <Fig. 33.>	2

## 2-2 주요문양의 펼친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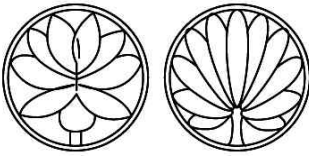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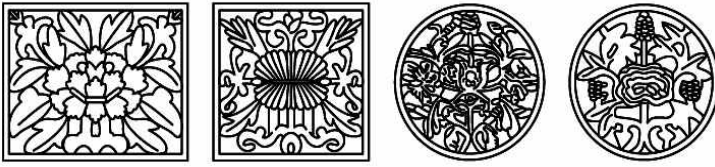
문양은 한자로 '문(文)' 또는 '문(紋)'으로 쓰여 진다. 앞의 문은 글자, 꾸밈, 아름다움, 빛남, 아롱짐, 문채 등을 뜻하며, 뒤의 것은 무늬를 말한다. 이것은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 즉 문자로의 역할도 해왔으며, 인류가 이루어 놓은 조형 활동 즉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등의 원천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양은 언어나 문자와 마찬가지로 그 민족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지녀,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통문양이라 하였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4).

해주반 판각에 나타난 문양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즉 식물문, 동물문, 기하학문이 있고, 다시 두 가지 이상의 소재가 섞여서 나타나는 혼합된 문양들이 있다. 판각문양은 다른 문양보다 혼합문이 가장 널리 사용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여기서는 해주반 판각에 나

타난 문양들의 특징을 살펴 주요문양은 앞으로 조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펼친그림으로 도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6>은 판각에 표현된 식물문중 연꽃문, 국화문, 모란문 등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연꽃문은 원형, 국화문은 사각형, 그리고 모란문은 사각형과 원형내부에 투각처리된 것이다. 또 여기에 표현된 문양들은 모두 좌우대칭의 안정적 형태를 보이면서 원초적 생명감을 느낄 수 있는 율동미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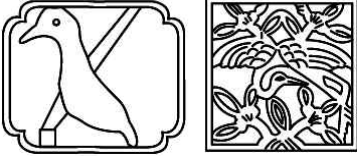

Table 6. Botanical pattern

식물문	펼친그림
연꽃문	 <p data-bbox="336 840 699 869">&lt;Fig. 66.&gt; (&lt;Fig. 17.&gt;, &lt;Fig. 18.&gt;)의 도식</p>
국화문	 <p data-bbox="336 1062 624 1091">&lt;Fig. 67.&gt; (&lt;Fig. 20.&gt;)의 도식</p>
모란문	 <p data-bbox="336 1294 980 1323">&lt;Fig. 68.&gt; (&lt;Fig. 22.&gt;, &lt;Fig. 24.&gt;, &lt;Fig. 28.&gt;, &lt;Fig. 29.&gt;)의 도식</p>

<Table 7>은 판각의 동물문을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새의 형태와 학 또는 쌍학을 소재로 하고 있다. 특히 <Fig34>와 <Fig35>는 학과 쌍학을 표현하면서 배경이 나뭇가지모양을 띄고 있지만 혼합문으로 분류하기는 단일소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여기에서는 독립된 동물문으로 분류하였다.



Table 7. Animal pattern

동물문	펼친그림
-----	------

<p>새문</p>	 <p>새문(&lt;Fig. 33.&gt;, &lt;Fig. 34.&gt;)의 도식</p>
<p>쌍학문</p>	 <p>쌍학문(&lt;Fig. 35.&gt;)의 도식</p>

<Table8> 은 판각의 혼합문양을 정리한 것으로 동물과 식물 2-3가지의 소재가 혼합되어있다. 나비와 꽃, 나비와 국화, 잉어와 연꽃과 나비, 그리고 모란과 새 또는 매화와 새 등이 좌우 대칭으로 뽀뽀하고 안정감 있게 표현되어있다. 그런데 해주반의 재료가 목재인 것을 감안하면 <Table8>의 문양형식들은 실제로 사각 틀 내부를 가득 채우면서 매우 화려한 조각양식을 띠고 할 수 있다. 특히 <Fig74>의 수복문은 글자를 중심으로 박쥐문이 사각의 모서리에 균형감 있게 표현되어 우리나라 전통문양의 아름다움을 격조 있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 <Table 9>는 쌍화자문과 만자문이 표현된 판각의 기하문을 정리한 것이다. 이런 성격의 문양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어떤 것과도 어울릴 수 있는 조화미와 단순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 조형자로나 디자인의 장식소재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8. Mixed pattern

혼합문	펼친그림			
<p>나비+꽃 (Fig. 45, 47, 50).  나비+국화 (Fig. 54)</p>	 <p>&lt;Fig. 69.&gt; (&lt;Fig. 45.&gt;, &lt;Fig. 47.&gt;, &lt;Fig. 50.&gt;, &lt;Fig. 54.&gt;)의 도식</p>			
<p>잉어+연꽃+나비 (Fig. 37.) 잉어+연꽃 (Fig. 40, 41.) 잉어+초문 (Fig. 43.)</p>	 <p>&lt;Fig. 70.&gt; (&lt;Fig. 37.&gt;, &lt;Fig. 40.&gt;, &lt;Fig. 41.&gt;, &lt;Fig. 43.&gt;)의 도식</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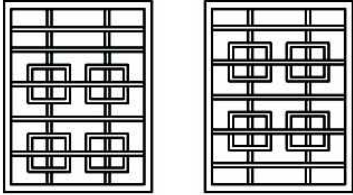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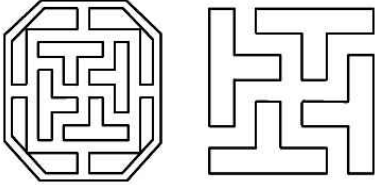
모란+새 (Fig. 64) 매화+새 (Fig. 65)	 <p data-bbox="340 552 718 581">&lt;Fig. 71.&gt; (&lt;Fig. 64&gt;, &lt;Fig. 65&gt;)의 도식</p>
수복문	 <p data-bbox="340 794 655 823">&lt;Fig. 74.&gt; (&lt;Fig. 7.&gt;)의 도식</p>

Table 9. Geometrical pattern

기하학문	펼친그림	
쌍희자문	 <p data-bbox="330 1205 732 1234">&lt;Fig. 73&gt; (&lt;Fig. 1.&gt;, &lt;Fig. 2.&gt;)의 도식</p>	
만자문	 <p data-bbox="340 1450 751 1481">&lt;Fig. 75.&gt; (&lt;Fig. 4.&gt;, &lt;Fig. 6.&gt;)의 도식</p>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식물문, 동물문, 혼합문, 그리고 기하문 등의 여러 가지 정리된 형태에서도 아름다운 조형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혼합문에는 주로 동물문과 초화문(연꽃문, 국화문, 모란문 등)의 혼합된 형태가 가장 많았는데, 앞서 살펴본 <Fig. 69>의 경우는 나비와 꽃 혹은 국화 등의 모양이 합쳐진 형태이다. 또한 <Fig. 70>의 경우에는 수중식물인 연꽃과 잉어, 나비, 또는 초문이 2-3가지의 혼합된 형태가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Fig. 71>의 새

문의 도식에서는 새의 형태가 꽃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Fig. 65>는 새문과 매화문이 사용되어 대칭의 형식으로 서로 마주보는 안정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 <Fig74>는 기하문을 중심으로 박쥐문이 좌우대칭 형식을 띄고 있어 안정감과 동시에 글자문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판각 문양들은 각각 부(富)와 수(壽), 복(福), 다산, 군자의 절개, 신성함과 고결함, 즐거움, 화목, 행복과 더불어 입신양명 등을 기원하거나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의미로 과거에 다양하게 적용되었던 여러 가지 원형, 사각, 또는 팔각형 내부에 처리된 전통 문양의 구성양식은 현대디자인의 여러 형식 및 가구디자인에 응용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형식은 보는 사람에게 편안한 균형감과 조형미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3 수종분석

<Table 10>의 해주반에 사용된 수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주반의 판각에 사용된 수종으로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참죽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그리고 기타 잡목 등이 있다. 그런데 수집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해주반에 사용된 재료는 친판, 판각, 운각(초엽, 풍혈), 족대 등 모든 부분이 같은 수종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able 10>은 앞의 판각문양의 유형에서 제시된 <Table 1, 2, 3, 4>를 수종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해주반의 판각에 가장 많이 쓰인 수종은 은행나무인데 그 수가 45점으로 압도적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느티나무가 9점, 단풍나무 5점, 잡목 2점 그리고 호두나무, 가래나무, 참죽나무가 각각 1점씩이었다. 또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없는 해주반도 1점이 있었다.

이러한 나무들은 의식주의 기본 생활이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 주변에서 모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유실수가 특히 많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수종 가운데 은행나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까닭은, 은행나무에는 독특한 향이 있어 썩이 쏘지 않으며, 이 것으로 만든 소반은 탄력성이 있어 눌리거나 패인 것도 쉽게 회복되는 재료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김 1997). 또 은행나무는 다른 잡목에 비하여 가벼워서 여성이 상을 주방에서 안방이나 혹은 사랑방으로 들고 나르기에 용이한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0. The type of wood used in 'Haejuban'

수종	사례	계	비고
은행나무	<Fig. 2.>, <Fig. 3.>, <Fig. 5.>, <Fig. 6.>, <Fig. 7.>, <Fig. 8.>, <Fig. 9.>, <Fig. 13.>, <Fig. 16.>, <Fig. 17.>, <Fig. 19.>, <Fig. 23.>, <Fig. 24.>, <Fig. 25.>, <Fig. 26.>, <Fig. 28.>, <Fig. 29.>, <Fig. 30.>, <Fig. 31.>, <Fig. 32.>, <Fig. 33.>, <Fig. 34.>, <Fig. 35.>, <Fig. 36.>, <Fig. 37.>, <Fig. 38.>, <Fig. 39.>, <Fig. 41.>, <Fig. 42.>, <Fig. 43.>, <Fig. 45.>, <Fig. 46.>, <Fig. 47.>, <Fig. 49.>, <Fig. 50.>, <Fig. 51.>, <Fig. 52.>, <Fig. 54.>, <Fig. 55.>, <Fig. 56.>, <Fig. 58.>, <Fig. 59.>, <Fig. 60.>, <Fig. 64.>, <Fig. 65.>	45	

느티나무	<Fig. 1.>, <Fig. 10.>, <Fig. 11.>, <Fig. 12.>, <Fig. 15.>, <Fig. 20.>, <Fig. 53.>, <Fig. 57.>, <Fig. 61.>	9	
단풍나무	<Fig. 14.>, <Fig. 18.>, <Fig. 40.>, <Fig. 44.>, <Fig. 63.>	5	
호두나무	<Fig. 22.>	1	
가래나무	<Fig. 4.>	1	
참죽나무	<Fig. 62.>	1	
잡목	<Fig. 21.>, <Fig. 48.>	2	
미확인	<Fig. 27.>	1	

### 3. 결 론

소반은 식기를 받쳐 음식을 먹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작은 상을 일컫는다.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이후에 우리나라 황해도 해주에서 생산된 해주반의 판각에 대한 조형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각각 해주반 판각 문양의 유형분류, 주요 문양의 펼친 그림 제시, 그리고 해주반에 사용된 수종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해주반의 판각 문양의 유형은 크게 단독문양과 혼합문양으로 구분되었다. 단독문양은 식물문, 동물문, 기하학문으로 나뉘었으며, 식물문은 연꽃문, 국화문, 모란문 등을 의미하였다. 또 동물문에는 새문, 학문, 쌍학문이 있으며, 기하문에는 쌍희자문, 수자문, 만자문, 창살문 등이 있다. 2개 이상의 문양으로 구성된 혼합문은 식물문, 동물문 그리고 글자문을 포함한 기하문보다 훨씬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초화문, 국화당초문, 잉어초문, 잉어연꽃문, 모란새문, 매화새문, 나비꽃문, 나비국화문, 모란나비문 등 2가지의 소재가 혼합되어 표현된 것과, 잉어, 연꽃, 나비와 같이 3가지 이상의 단독문양이 혼합되어 표현된 것이 있다.

이러한 여러 문양 소재 중에서 단독문과 혼합문을 합쳐 가장 많이 표현된 판각 문양은 모란문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나비꽃문이며 세 번째는 연꽃과 관련된 문양이었다. 모란문이 해주반의 판각문양의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무엇보다도 모란문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모란문은 부귀와 공명, 천하제일의 아름다움과 화목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판각에 표현된 문양의 배치 형식은 대체로 좌우대칭의 안정적인 조형적 특징을 보여주었다. 특히 투각 처리된 문양의 구성은 사각형, 원형, 팔각형의 틀 안에 들어있는 것의 순으로 조사 되었는데 사각 틀 안에 표현된 문양형식이 압도적인 분포를 보여 주었다. 여기에 표현된 문양들은 대체로 뾰뾰하게 채워진 화려한 형식이었다. 그리고 해주반 판각에 나타난 문양들은 수, 복, 강, 녁과 절개, 신성함, 행복, 출세 등의 염원을 의미하는 것들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에 대해 선조들은 그 희망과 꿈을 문양을 통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해주반을 만든 장인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을 것이며 그들은 모두 일정한 규칙이나 안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양을 아름답게 표현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형미와 구성의 특징은, 본문의 해주반의 판각문양을 시각적으로 잘 정리하여 도식으로 표현한 결과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해주반에 사용된 수종은 일률적이지 않았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주반에는 은행나

무가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느티나무와 단풍나무가 선호되었다. 그리고 호두나무, 가래나무, 참죽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선조들은 은행나무로 된 해주반의 판각에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문을 사각 틀 안에 표현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던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은행나무는 가구의 재료로 뒤뜰림이 거의 없고 다른 재료에 비해 비중이 가벼운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애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과거에 사용되었던 해주반의 판각에 표현된 여러 가지 문양의 구성방식은 현대디자인의 여러 분야 및 가구디자인에 적용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안정적이다. 또 이것들은 균형감을 갖고 있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문화요소들이 우리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확인 시켜줄 수 있는 생생한 문화의 원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차용된 이미지를 현대 공간에 어울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 현세대를 살고 있는 미술가나 우리 디자이너들의 연구과제일 것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해주반에 내재된 전통양식의 아름다움이 자료로 잘 정리되어 현대적인 기법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과거의 아름다움에 대한 현대의 적용을 단지 찬상이라는 범주에 머물지 않고 더욱 확대된 의미로 해석하여 이러한 특질의 전통미가 현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연구되도록 노력해야 마땅할 것이다.

끝으로 해주반은 본 연구에서 다룬 판각 이외에도 운각(초엽, 풍혈) 또는 판각과 연결되는 족대에 나타난 문양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또 그것들은 판각과 유려한 조화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해주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4. 참고문헌

- 고도사. 2004. 옛사람 숨씨전. 고도사: 175-203.
- 김삼대자. 1997. 전통 목가구. 대원사: 107.
- 나선화. 1989. 소반,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1, 81.
- 남궁선. 2000. 나주반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
- 로이스 피호너-라투스. 2005. 새로운 미술의 이해. 예경: 103, 105.
- 박상현. 2006. 소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22.
- 박영규. 1997. 한국의 목공예. 범우사: 141.
- 박영규. 1982.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143, 227.
- 박태준. 2008. 옹기의 생성이미지에 의한 색채 및 형태 분석.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5, 99.
- 손지인. 2002. 조선시대 회화에 보이는 소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17.
- 이영자. 1980. 통영소반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1-4.
- 이중석. 1986. 한국의 목공예 하. 열화당: 40.
- 이중순. 2008. 소반의 형태와 문양을 응용한 장신구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14.
- 임영주. 2004.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74, 152, 168, 171, 177.
- 정현미. 2004. 반문화 연구. 국립민속박물관: 34-3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4. 한국의 무늬. 예맥출판사. 7, 41.

한명희. 2008. 조선 후기 전통 소반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18.

### 5. 도판인용도표

합계	문양명	도판인용	순번
3	연꽃문	fig17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75쪽, 1.	1
		fig18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75쪽, 2.	2
		fig19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75쪽, 3.	3
10	모란문	fig26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1쪽, 17.	4
		fig22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2쪽, 18.	5
		fig23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2쪽, 19.	6
		fig28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3쪽, 20.	7
		fig29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4쪽, 21.	8
		fig31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5쪽, 23.	9
		fig24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6쪽, 24.	10
		fig25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6쪽, 25.	11
		fig27 : 박영규 1997, 한국의 목공예 143쪽, 27.	12
fig30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4쪽, 22.	13		
2	국화문	fig20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4쪽, 40.	14
		fig21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4쪽, 41.	15
2	새문	fig33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9쪽, 30.	16
		fig34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0쪽, 31.	17
1	쌍학문	fig35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7쪽, 26.	18
3	쌍희자문	fig1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78쪽, 11.	19
		fig2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78쪽, 12.	20
		fig3 : 박영규 1982, 한국의 목가구 227쪽.	21
3	수자문	fig8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0쪽, 14.	22
		fig9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0쪽, 15.	23
		fig10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0쪽, 16.	24
3	만(卍)자문	fig6 : 소반 1989, 빛깔있는 책들 11쪽.	25
		fig5 : 박영규 1997, 한국의 목공예 141쪽.	26
		fig4 : 소반 1989, 빛깔있는 책들 9쪽.	27
1	창살문	fig11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203쪽, 61.	28
1	수복문	fig7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79쪽, 13.	29



1	초문	fig32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0쪽, 32.	30	
1	봉황쌍희자문	fig36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9쪽, 29.	31	
5	식물문	초화문	fig16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9쪽, 54.	32
			fig12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201쪽, 57.	33
			fig13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201쪽, 58.	34
			fig14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202쪽, 59.	35
			fig15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202쪽, 60.	36
29	식물 +동물	잉어초문	fig43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76쪽, 5.	37
		잉어연꽃문	fig40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76쪽, 7.	38
			fig41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77쪽, 9.	39
			fig42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77쪽, 10.	40
			잉어연꽃 나비문	fig37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76쪽, 4.
		모란새문 매화새문	fig38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76쪽, 6.	42
			fig39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76쪽, 8.	43
			fig64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88쪽, 27.	44
		나비꽃문	fig65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88쪽, 28.	45
			fig45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96쪽, 45.	46
			fig46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6쪽, 46.	47
			fig47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7쪽, 47.	48
			fig48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7쪽, 48.	49
			fig49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98쪽, 49.	50
			fig50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8쪽, 50.	51
			fig51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9쪽, 51.	52
			fig44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5쪽, 42.	53
			fig53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6쪽, 43.	54
			fig52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9쪽, 52.	55
			나비국화문	fig55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9쪽, 53.
		fig54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6쪽, 44.		57
		fig57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3쪽, 38.		58
		fig56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200쪽, 56.		59
		모란나비문	fig58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1쪽, 33.	60
			fig59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1쪽, 34.	61
			fig60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1쪽, 35.	62
			fig61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2쪽, 36.	63
			fig62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2쪽, 37.	64
			fig63 : 고도사 2004. 옛 사람 숨씨전 193쪽, 39.	65